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성경: 마태복음 10장 24-33절

Tag:

24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26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10:24-33)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 번,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한번 나온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을(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비난하였다. 왜냐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이라는 식으로 비난한 것

이다. 비난 하는 자들은 선행이라도 비난하면서 엉뚱한 괴변을 늘어 놓는다.

예수님도 비난 받으셨는데, 하물며 흠결 많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비난 받겠느냐는 뜻이다. 그러나 비난 받는다고 해도 그들을 두려워 하지 말라. 다만,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도 말며, 내 속에는 악이 없다고 자부하지도 말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자들일 뿐이다.

두려움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신체적인 두려움이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신체적인 두려움을 감지한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재빨리 그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정한다. 만약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뇌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순간적으로 기절시켜서 몸을 보호한다. 의식이 있는 채 죽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뇌 기능의 중요한 부분은 5감 센서 제어 와 데이터 처리 분석 그리고 그 해석과 반응에 관한 것. 대부분의 정보는 무의미한 정보로 처리되고, 신체 정보 중 대부분은 자동 처리되고, 극 소수만 인지영역에 도달한다.)

-재능 향상이나 공부 등 스스로의 의지로 가능한 것은 훈련과 러닝, 스터디, 경험 등을 통해서만 정보 저장 및 습관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 두려움은 심리적인 두려움이다. 강도를 두려워한다든지, 경찰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강도가 두려우면 빨리 도망가야 하고, 경찰이 두려우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두려우면 회개해야 한다.

만약 이런 심리적이고 영적인 두려움을 방치하면 위험하다. 회개해야 한다. 경찰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기

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하는 경우가 있다.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단스러운 자들은 처단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양심이 더럽혀져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1. 비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26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것이니 기다리라.

요즘들어 대선 후보들이 아내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내가 볼 때 거기서 거기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죄인일 뿐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것 썸이야, 남들 다 하는데 하면서 저지르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창피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 죄 썸이야 죄도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고, 만약 금지한 일을 할 경우에는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엄히 훈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부모는 무섭고 엄격한 부모일까? 아니면 아이가 잘못되고

불행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부모일까?

만약 어떤 자녀가 금지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부모는 약속대로 매를 들어 자녀를 때렸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재차 훈계했다고 치자. 그 부모는 자비심이 없고, 한다면 하는 철저하고 율법적인 부모일까, 아니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해서는 안될 짓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약속을 이행한 성실한 부모일까?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셨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 주었느냐?’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창3:11)

-과연 누구일까? 마귀인가? 자기 자신인가? 아담은 비난을 두려워했다.

예수님도 간음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요8:10)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8:11)

-성도가 비난을 두려워 할 때 영적으로 위험해진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이 죄를 금하신 이유는 죄 때문에 생기는 해악 때문이지, 경찰본능이 있으셔서, 몰래 숨어서 지켜보다가 죄를 범하면 딱 걸렸다고 외치며 벌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마귀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

용해서 괴롭히려는 것도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다. 선줄로 알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책감과 저주를 벗어 버리고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날아 오르기를 바라고 계신다.

예화; 19세 사만다. 그녀는 고교 졸업 후 육군에 입대. 낙하산 학교에 지원. 최종 훈련을 마치고, 그들은 졸업식에서 낙하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낙하산이 퍼지지 않고 낙하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되었지만, 신기하게 살아남았다.

정부와 군대와 부모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훈련받은 대로 자신의 낙하산을 잘 접었지만, 퍼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와 군대는 그녀가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 도왔다. 부모도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간호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졌다고 인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수치심까지 이기기를 원하신다. 죄를 정복하기 원하신다. 뒷 감당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몸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최초의 아벨부터, 모든 사람은 죽는다.

-물론 원래는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

지 말라.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 없이 많은 죽음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음에 대한 솔루션이 있다.

-사고 현장에서 죽기도 하고,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텃 속에서 죽은 채 출산하기도 한다.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기도 한다.

-전쟁을 통해서, 이념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나머지 자살하기도 한다.

-죽음처럼 허무한 것이 있을까. 이처럼 억울한 것이 있을까?

-이처럼 두려운 것이 있을까?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몸을 예비하신다.

-두려워 해야 할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 밖에 없다.

-그분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3.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아닌지 두려워하지 말라.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앞에 하찮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의 무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기분은 나쁘지만, 화를 내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일 뿐이다.

-사람들의 무시를 인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그들이 내게 복을 주는 자들이 아니다.

-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것이다.
-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게 인생이다.
-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너는 귀한 존재다. (포레스트 검프; 28년 전 영화.)
- 어마어마 한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 지금도 낙원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몸도 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
- 많은 사람들은 낙원을 마치 천국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곳이 만약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함께 있다면, 그곳도 영적 전쟁이 치열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운 몸도 입게 되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4.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 우리의 천국행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일이 있다.
- 오직 예수님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 최소한의 복음 전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마음에 평안을 얻었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으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답니다.
-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를 믿으며, 나는 회개함으로 거듭났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거야.

-나는 새 몸을 입고 부활 할거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비난 받으면.)

-당신은 예수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고 하기 보다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구원이고,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사무엘하 성경공부 성경: 사무엘하 5장

Tag: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2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3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 다윗이 나이가 삼십 세에 왕위에 올라 사십 년 동안 다스렸으되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6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7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8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길은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9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13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랐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14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과

15 입할과 엘리수아와 네벧과 야비아와

16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17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 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0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21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22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뿔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 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 이에 다윗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
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삼하5:1-25)

[1-10장, 다윗의 승리적 통치]

1장, 사울의 죽음을 슬퍼함. (길르앗 야베스)

2장,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

다윗이 30세 때이며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은 지 약 10년 후.

3장, 아브넬의 죽음.

4장, 이스보셋의 죽음.

5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

6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

다윗은 바알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오려하였다(2절).

그 궤는 기랴트여아림에 두어졌었고(삼상 7:1-2) 사울 때에도 사용된
적이 있었으나(삼상 14:18),

다윗은 그 궤를 몹시 찾았고 마침내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야알의
땅=삼림의 땅)에서 찾았다(시 132:1 -7). 바알레(바알라)는 곧 기랴
트여아림(삼림의 성)이다. (수15:9)

아비나답의 집-오벰에돔의 집.-다윗 성(다윗의 장막)

2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
고

4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
기를

5 여호와와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6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
았도다 (시132:2-6)

7장, 다윗에게 주신 약속.

8장, 다윗의 승전들.

9장, 르비보셋을 선대함. (요나단과의 약속)

10장, 암몬 왕 하논의 실수.

[11-24장, 다윗의 범죄와 고난]

11장, 다윗의 범죄(간음과 살인). 밋세바 사건

12장, 나단을 통한 책망.

13장, 강간과 살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함.

14장, 압살롬이 돌아옴. -압살롬의 정치적 야망.

15장, 압살롬의 반역.

16장,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함.

17장, 후세의 모략.

18장, 압살롬의 죽음.

19장,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20장, 세바의 반란.

21장, 3년 기근.

-기브온 사람. 아모리 사람 중 남겨진 자들. 이들은 성전 봉사를 약속함.(나무를 패고 물을 길기로 함.) -혹시 사울이 놈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

-아마 학살에 사울의 친척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깊고, 그들이 약탈까지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에게 어떻게 속죄할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와 신약의 원수를 사랑하라. 의 차이 해석. 신약은 천국을 향한 위한 계명.

22장, 다윗의 시. 23장, 다윗의 37용사들.

24장, 인구 조사의 죄(교만).

-하나님이 격동함;세바의 반란에 동조한 자들에 대한 심판. 순식간

에 세바를 좇음.

인구조사는 곧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보다, 군사력에 의지함을 뜻함.

-사악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실시함을 뜻함. 요압이 이에 못마땅해 함.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속제의 제사를 드림.

-왕권 강화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해결 됨.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평안함.

-심지어 재앙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함. 전쟁보다 재앙이 차라리 낫고, 악히 횡행하는 것보다 나음.